

해외여행 관심도 UP...지갑에는 찬바람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해외여행 기대심리가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연간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를 보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느리게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팍팍해진 개인 소비심리와 글로벌 백신접종 등 현실적인 난제가 있어 과거 수준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내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에서 아쉬움을 아시아나항공의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통해 달래는 사람들. 백신 소식과 함께 해외여행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나 소비심리와 백신접종 등 현실적인 난제로 인해 단기간-근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동아DB

여행 리서치 컨슈머인사이트 조사 언택트 여행지 남태평양 선호 높아 단기간-근거리-휴식 트렌드 우세 소비심리, 예전으로 복귀 시간 필요

●여행심리 2016년 절반, 백신소식 12월 회복세

'해외여행에 관심이 커졌다'는 의견은 지난해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19%까지 폭 떨어졌다. 해외여행이 왕성했던 2016년의 37%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

도로 여행심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7월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 해외여행 심리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전해진 12월부터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청정·휴양 여행지로 알려진 남태평양은 여행심리 감소도 상대적으로 덜했고, 7월 저점 이후 회복세도 빨랐다. 한적한 곳에서 휴식하는 언택트 여행지 선호가 높아지면서 가장 이상적인 여행지로 부상했다. 반면 외신을

통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접한 유럽과 미국 캐나다의 상대적으로 여행심리 회복이 더디었다.

●유럽 남태평양 대신 동남아가 현실적 대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앞으로 더 높아지겠지만 이런 기대심리가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개인 경제상황이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지출 가운데

여행비를 먼저 줄여왔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체감경제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평균 79.2인 반면, 여행비 지출 전망지수는 51.8을 기록했다. 50 수준의 전망지수는 사실상 여행비를 늘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수치다.

해외여행 재개는 글로벌 백신접종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행지 선택도 백신접종이 광범위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당분간 우세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유럽이나 남태평양은 한동안 '버킷리스트'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 컨슈머인사이트측은 동남아가 현실적인 여행 대안지역으로 주목받으면서 해외여행 트렌드가 단기간-근거리-휴식 위주의 국내여행 트렌드와 닮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속과 안전을 고려해 국내여행으로 눈을 돌리는 여행자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날씨와 생활

27일(수)

서울 10/20	인천 10/20	수원 10/20
-3 5	-2 4	-4 5
춘천 20/20	강릉 0/20	청주 0/20
-5 6	1 8	-2 6
대전 20/20	전주 20/20	광주 20/10
-2 7	0 7	1 9
대구 20/20	울산 20/10	부산 20/0
0 9	2 10	3 12
창원 20/0	제주 0/0	지역
1 9	5 10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7:40 해질 17:50 🌙 달돋음 16:08 달질 06:31

산 날씨

북한산 -5/5	내장산 -1/6
설악산 1/7	무등산 -1/9
오대산 -3/6	주왕산 -3/8
속리산 -4/6	지리산 -1/12
계룡산 -3/6	한라산 5/13

바다 날씨

인천선도 -2/4	안면도 꽃지 -3/5
제주도 -2/5	변산반도 0/7
경포대 1/8	거문도 0/11
속초 0/7	해운대 3/12
대전 -5/5	제주도 5/10

미세먼지

서울 25	좋은	대전 12	좋은
부산 10	좋은	경기 29	좋은
대구 16	좋은	강원 18	좋은
인천 34	보통	전북 27	좋은
광주 20	좋은	제주 6	좋은

롯데면세점, 라이브커머스 시장 본격 진출

내달 4일, '럭스몰'서 첫 라이브 마케팅 부문에 전담 조직 신설



롯데면세점이 실시간 온라인 방송 '럭스몰 라이브'(사진)로 본격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한다.

롯데면세점은 2월4일 오후 8시에 첫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라이브 방송을 실시한다. 지미주 등 해외 패션 브랜드의 구두, 가방, 의류 등 88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면세점의 내수통관 면세품 온라인샵인 럭스몰 홈페이지(ldfluxmall.com) 또는 모바일앱(안드로이드만 가능)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비대면 쇼핑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 12월 마케팅부문에 라이브 커머스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교보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올해 약 2조8000억 원, 2022년 6조2000억 원, 2023년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롯데면세점은 내수통관 면세품 라이브 방송을 정기편성하고,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면세품 라이브 방송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급부상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면세업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분야"라며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면세점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서울관광재단-한국PCO협회, '글로벌 PCO육성' 업무협약

서울관광재단은 국내 최대의 PCO(국제회의·전시회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PCO협회와 '서울형 글로벌 PCO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관광재단-한국PCO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와 한국PCO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범 기자

앞으로 양측은 서울형 글로벌 PCO 육성 기반을 구축해 컨벤션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가 늘어나는 컨벤션 산업 변화 트렌드에 맞춰 미래형 MICE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PCO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LGU+, 모차르트 미공개 곡 공개

LG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 U+tv와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U+모바일tv에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주간'의 공연 콘텐츠를 국내 독점 공개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 작곡한 '알레그로 D장조'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모차르트 사후 230년간 미공개였던 94초 분량의 짧은 피아노곡으로 춤곡 같은 분위기다. 연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맡았다. 김명근 기자

애경산업, 중화장품기업 프로아와 MOU

애경산업이 25일 중국 화장품 기업 프로아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로아는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하며 유제, 유아, 안아 등 다수의 인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애경산업은 화장품 브랜드 'AGE20's'(에이지 투웨니스)의 중국 내 오프라인 시장 확대 및 판매를 강화한다. 또 프로아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정국 기자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05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훈 편집국장 연재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은
 경제산업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27일(수) 음력: 12월 1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힘찬 하루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여명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무지개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가을비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맑음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갈등
급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장성이 망신을 만난 날이다. 장성과 망신 관계는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다. 서로 비호하여 실수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자칫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환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회근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은 뭔가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여성의 경우 남자가 조심하라. 금전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휘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며 곤란한 야기 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일이 해보고 싶다. 여성의 경우 무언가 이뤄진다. 기다리면 일이 어려워진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삼가라. 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기에 투자하라. 오늘은 검찰일이다.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책임 있는 자제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서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의 상황에서 자제하며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앞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싸늘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상쾌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구름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여우비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먹구름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파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뜻하지 않는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돼지날이다. 말은 돼지날을 맞이하면 도전적이며 남에게 자기 싫어하는 기운 또는 강박의 기운을 갖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약하면 타인에 당하기도 한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을 시도하려거든 과감하게 실행하라.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니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양이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화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화개는 덮고 가리고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는 기운이며, 지살은 행동하는 기운이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쓰이는 때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성이 필요하다. 무리하면 상처 받는다. 원숭이가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망신살이다. 말로 먹고사는 사람은 자칫 망신이나 회통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일이 커질 수도 있다.	의욕이 앞서거나 물욕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일처리 과정에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사된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육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고,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나 주변의 시선을 모은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때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기에 투자하라. 오늘은 검찰일이다.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돼지날이다. 돼지가 돼지를 만났으니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또 오늘은 비견의 날이다.